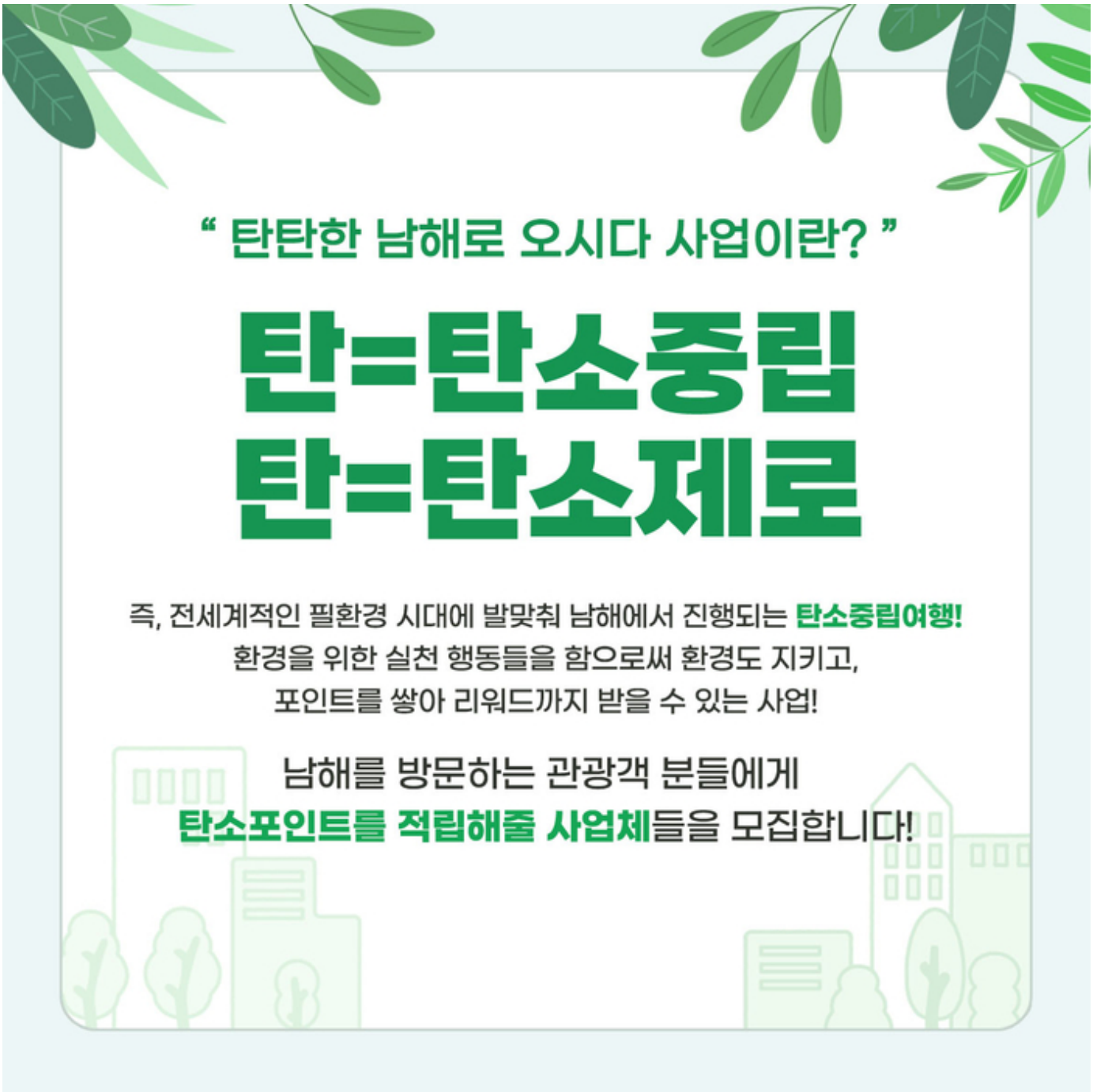
경향신문

여행도 즐기고 재활용품도 받고...탄소중립 남해여행 운영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2022-08-02 10:56 입력 | 2022-08-02 10:56 수정



경남 남해군 탄소 중립·제로 사업체 모집 안내문. 남해군 제공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오는 9월부터 관내 식당·카페·숙박지 등에서 탄소를 줄이면 재활용품을 주는 '탄소중립 남해여행'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탄소절감 소비를 유도하려고 친환경 여행 상품인 탄소 중립·제로 여행인 '탄탄한 남해로 오시다'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사업 중 하나이다.

'탄소중립 남해여행'에 동참하는 업체는 관광객이 업종별 분류된 친환경 행동을 하면 재단에서 개발한 QR코드 기반의 적립 시스템에서 '탄탄코인(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적립한 포인트는 남해대교에 있는 관광안내소인 '남해각'에서 수세미 등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업종별 친환경 소비 행동으로는 주문한 음식 남기지 않기(식당), 다회용컵 이용하고 일회용 빨대 받지 않기(카페), 체크인 시 개인 세면도구 사용 인증하기(숙박), 일회용 포장지 이용하지 않기(도・소매점) 등이다.

참여사업체는 남해관광문화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홍보하는 등 다양한 연계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재단 누리집(namhaetour.org) 공고 게시판 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재단 사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오는 25일까지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